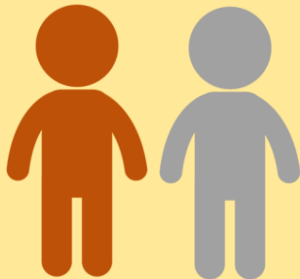


# “모두의 집”의 존재 의미

## 일본 어린이의 빈곤 상태

여러분은 일본의 아이의 빈곤 상황을 아십니까?

현재 일본의 아이의 빈곤율은(2018년)은 **13.5%로 약 7명에 1명**이 빈곤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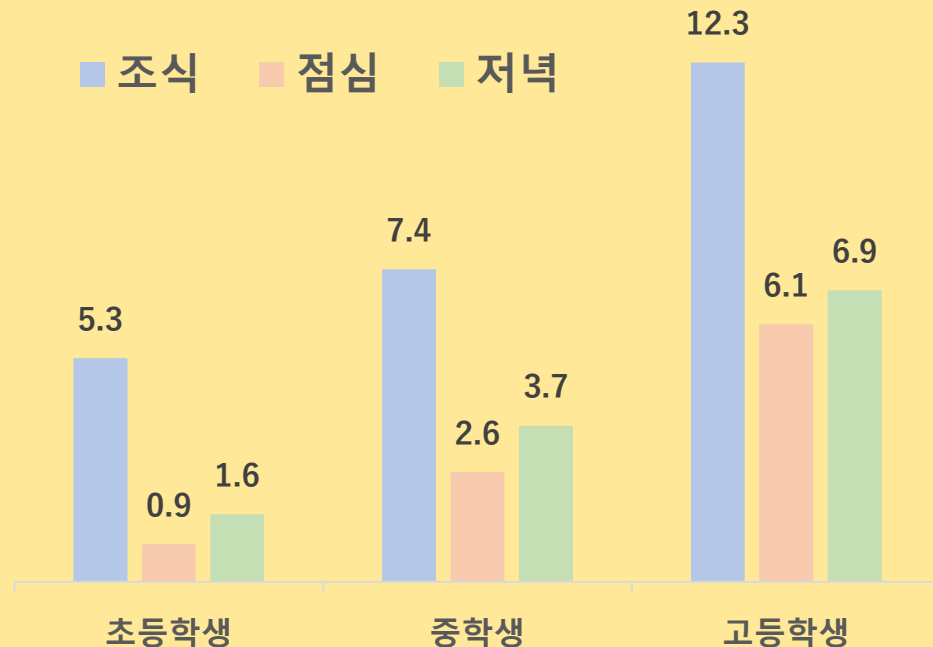
게다가 혼자 가정에서는 **48.1%로 약 2명에 1명**이 빈곤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.

이러한 현상은 선진국 중에서는 최악의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

## 일본의 홍밥현황

여러분은 홍밥을 아십니까?

고식이란 말 그대로 **고립된 상태에서 하는 식사**를 말합니다.



한 조사에 의하면, 평일의 아이의 저녁 식사의 홍밥율은 **초등학생으로 1.6%, 중학생으로 3.7%**로 보기 드물게 느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, 학생수에 곱하면 **초등학생에서는 약 10만명, 중학생에서는 약 12만명**, 함께 **전국에서 약 22만명**의 아이가 혼자 저녁 식사를 보내고 있다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.

홍밥가 많은 것은 아이들만?

물론 그런 것은 없습니다.



60~84세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한 조사에 따르면 **남성에서는 11.6%**, **여성에서는 19.6%**가 매일 홍밥 상태에 있다는 상황이 있습니다.

독신이나, 이혼, 타계 등, 여러가지 이유에 의해, 혼자서 먹어야 할 지지 않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.

## ■ 거기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“모두의 집” 이란?

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, 성별은 물론, 연령, 국적, 경력 등 모든 벽을 없애, 모두가 부담없이 모여 누군가와 식탁을 둘러싸는 시간을 만들 수 있는 “모두의 집” 입니다 !

빈곤 등으로 충분한 양을 생각하도록 먹을 수 없는 아이는 물론, 다양한 사정으로  
홍밥이 많아져 버리고 있는 현재, 어른에게도 누군가와 식탁을 둘러싸는 시간을  
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!

평상시 혼자 식사 시간을 보내 버리는  
경우는, 좀처럼 누군가와  
커뮤니케이션은 태어나지  
않습니다만, 근처에 누군가와 식탁을  
둘러싸다 수 있는 장소가 있어,  
커뮤니케이션의 기회가 늘어나면, 혼자서  
밥의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, 분명 뭔가  
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!



#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

